

“정몽준·정기선 세습·사익 거수기 이사 반대한다”

한국조선해양, 정몽준 앞잡이 이사 선임 추진 ... 노조, 국민연금 등에 반대 의결 촉구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가 정몽준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거수기 노릇을 해온 자들의 한국조선해양 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와 지부는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과 주주들에게 오는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과 최혁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의 한국조선해양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와 지부는 3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총수 사익 대변, 갑질 이사 선임 반대. 국민연금 등 현중 주주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함께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 집행부가 직접 참석해 정몽준, 정기선 일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가삼현 사장과 최혁 교수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지부는 공공기금과 주주들에게 “재벌 총수 위주의 재배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이들의 이사 선임을 반대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재벌 총수에 편향된 이사 선임을 막아야 이사회 기능이 정상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선과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몽준 일가 사익 거수기, 가삼현·최혁

노조에 따르면 사내이사 후보인 가삼현 사장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재직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4억 3천여만 원과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게다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1억 원을 받고 고발당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가 노동부에 신고한 체불임금이 150억 원에 이른다.

노조와 지부는 “현대중공업그룹 대주주 정몽준의 뜻에 따라 움직인 가삼현 사장이 두 회사의 이해가 충돌할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주총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내정된 최혁 교수는 2018년과 2019년 현대중공업 사외이사로 스물한 번

이사회에 참석해 모두 원안에 찬성하면서, 정몽준 일가의 충실한 거수기 노릇을 했다. 2010년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 시절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일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위해 선여섯 번 이사회 참석에 100%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외국계 연기금 투자기관은 최혁 교수의 SK이노베이션, GS건설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매출 2.3%, 영업이익 22.6%가 감소했지만, 최대 주주인 정몽준, 정기선 부자는 배당금으로 930억 원을 챙겼다. 반면 며칠 전 현중 원청이 주도해 물량팀 노동자 일당을 5천 원 삭감했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정몽준, 정기선 일가의 사익 편취 앞잡이 가삼현과 최혁의 이사 선임에 반대해 달라”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조경근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가삼현 사장과 최혁 교수가 총수 일가를 위해 일할수록 노동자들은 고통에 빠진다”라고 토로했다. 조경근 지부장은 “많은 노동자가 죽고 다치면서 현대중공업을 위해 일하고 있다. 정몽준 일가 세습 경영에 앞장서는 가삼현과 최혁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라고 경고했다.

“두산그룹 박씨 일가가 책임지라”

두산중공업지회 상경 투쟁, 인적 구조조정 중단 촉구 ... “방만, 부실경영이 두중 위협한다”



“오죽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 코로나 19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천릿길을 마다하지 않고 서울까지 왔겠는가?”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가 3월 17일 두산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분쇄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회는 ▲구조조정 즉각 중단 ▲두산그룹 박정원, 박지원 일가 사재 출연과 그룹 차원의 지원 ▲현 경영진 퇴진과 전문 경영인 도입 등을 촉구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이윤 챙기기에 급급한 두산 자본을 그대로 두지 말자고 호소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회사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다. 두산중공업 자본

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인적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배 두산중공업지회장은 투쟁사에서 두산중공업이 경영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뒷골목 모리배들이나 하는 짓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배 지회장은 “박정원, 박지원 회장 일가는 두산중공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계열사 지원만 늘려가며 수천억 원의 배당금과 연봉을 챙겼다. 이런 방만, 부실 경영이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성배 지회장은 “두산중공업은 노동자 임금이 회사 생존을 위협한다는 거짓말을 멈추라”라고 경고했다.

엄교수 노조 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도요타 사례를 들며

경영진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요타 회장은 ‘종업원을 해고할 정도로 경영이 잘 못됐다면 할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영진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라며 “노동자를 해고한다고 경영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 축적한 자본을 풀어 경영을 정상화하라”라고 촉구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자본은 언제나 노동자를 비용으로 취급하며 부실 경영 대책으로 비용을 줄인다면 노동자를 해고했다”라고 분노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지회 확대간부들은 두산타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지회는 계속해서 상경 투쟁을 벌이며 두산중공업 박씨 일가에 경영 위기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